

East of Mongolia

초록색 땅과 파란 하늘, 그리고 하얀 구름이 전부였다. 예상했던 풍경이었다.
하지만, 끝이 있긴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은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일이 다시 없을 황홀한 순간으로 남으리라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같은 풍경은 매 순간 다르게, 깊숙이 다가왔다.

글 · 사진 한미희 기자





13세기

시간 여행

몽골 여행의 목적지는 대부분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멀지 않은 테렐지 국립공원과 북서쪽 흡스굴 호수 국립공원, 남서쪽의 고비사막 정도다. 외국 여행자는 물론 몽골인들도 기본 사람이 많지 않은 동부 지역, 칭기즈칸의 고향 헤티주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평원을 지나 최동단 도로노드주의 중국 접경 지역인 할호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2천500km의 여정을 위해 한국에서 온 노란색 중고 미니버스에 올라탔다.

몽골의 시작과 끝, 칭기즈칸

이른 아침, 울란바토르 시내의 교통 체증을 벗어나자마자 구릉과 초원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바로 이어지는 메인 도로가 공사 중이어서 울란바토르 남쪽의 산을 빙 둘러 가야 했다. 울란바토르를 벗어나기 직전, 멀리서도 눈에 띄이는 거대한 기마상이 보였다. 몽골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웅, 칭기즈칸이다. 높이 40m의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진 기마상은 칭기즈칸의 고향이자 그가 몽골제국을 일으킨 헤티주를 향해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그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1천여km를 달릴 것이다.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울란바토르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터브주에 들어섰다. 에르네

에서 동부고속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를 달려 남쪽으로 향했다. 고속도로라고는 하지만 왕복 2차선에 여기저기 패여 덜컹거리기 일쑤였다. 이런 도로라도 깔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며칠 뒤 10시간 가까이 오프로드를 달리면서 깨닫게 된다. 8월 한여름 몽골의 날씨는 20도가 채 되지 않았고 쨍하니 해가 비추다가도 먹구름이 깔리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은 수많은 바퀴와 비에 여기저기 웅덩이가 생기고, 웅덩이를 돌아가는 또 다른 길이 만들어지면서 이리저리 이어졌다. 흰색, 검은색, 갈색, 회색, 얼룩무늬까지 털 색도 다양한 소들이 때때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곳에서는 경계도, 길도 무의미해 보였다.

1 '13세기 마을'에 사는 톱소가 말처럼 타고 다니던 갈퀴를 앞에 놓고 게르 입구에 앉았다. 2 울란바토르 외곽의 칭기즈칸 기마상 3 동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1 캠프
입구를 지키는 옛된
얼굴의 연락병
2, 3, 4 왕의 캠프에서 맛보는 몽골
전통 음식. 우유에 물을 섞어 끓인
수테차, 칼국수 같은 랍샤, 튀김만두
호쇼르 5 게르 천장의 둥근 창 투노
6 왕의 자리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



멀고 먼 영광의 시대

마을을 벗어나자 인터넷은 물론 전화도 끊겼다. 흠길
을 달려 향한 곳은 13세기의 문화와 생활 모습을 그대
로 재현해 놓은 '13세기 마을'(13th Century Complex)
이다. 13세기는 칭기즈칸이 제국을 건설해 역사상 가
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몽골이 가진 가장 자랑스러
운 역사이자 여전히 놓지 못하는 과거다. 그 시절의
한반도 역시 몽골에 정복당했던 치욕을 겪었으니 단
호히 입장을 거부하기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21세

기에 이곳을 찾은 여행자에겐 사실 그저 너무 먼 과
거일 뿐이었다.
한참을 달리자 나무를 세워 올린 성벽이 멀리 보였
다. 말을 타고 성문을 지키고 있던 옛된 얼굴의 연락
병 둘이 버스를 보자 먼저 안으로 달려가면서 연락병
캠프로 이끌었다. 장수 역할을 맡은 남자가 나와 방
문객을 맞고 게르 안으로 안내했다. 장수의 의자에
앉아 털모자를 쓰고 큰 칼을 들고 근엄하게 포즈를
취해줬지만, 전통 복장 안에 받쳐 입은 형광 티셔츠

가 너무 도드라져 웃음이 나왔다. 다시 차를 타고 왕
의 캠프로 향했다. 야트막한 돌산을 뒤로하고 한가운
데 장대 사이로 난 길 끝에 가장 큰 게르(Ger)가 있
다.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도 올라있는 게르는 유
목민들이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는 가볍고 단순
한 전통 가옥이지만, 초속 18~20m의 강한 바람에도
견딘다. 천장의 둥근 창인 투노를 통해 빛이 들어오
는 게르 한가운데는 말린 말똥 등으
로 불을 피우는 난로가 자리 잡

고 있고, 남쪽으로 난 입구 반대편 가장 안쪽에 화려
하게 장식된 왕의 자리가 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왕과 왕비의 옷을 걸치고 기념사진을 찍는다. 남은
공간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전통 음식으로 점심을 먹
었다. 우유에 물을 섞어 끓인 수테차로 시작해 양고
기가 들어간 튀김만두 호쇼르와 칼국수와 거의 똑같
은 랍샤가 나왔다. 한반도에서 국수를 먹기 시작한
것이 고려 시대부터라 하니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을
법하다.





낮익은 것과 낯선 것의 조우

원시 종교의 주술사인 샤먼의 캠프도 낯선 듯 낯익은 모습이다. 서낭나무처럼 주변에 색색의 천을 매단 나무 한 그루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을 뽕족하게 깎은 나무 기둥이 바깥을 향하도록 방사형으로 빙 둘러섰다. 나뭇 기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공예가의 캠프다. 칭기즈칸의 어릴 적 이름을 딴 테무친(7)과 톱쇼(2) 형제가 조부모와 함께 일행을 맞았다. 아이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사진 찍히는 일이 익숙한 것 같았다. 아직 말을 못 하는 톱쇼는 자신을 보고 귀엽다며 인사를 하거나 다가가려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갈퀴를 말처럼 타고 휙 지나쳤다. 테무친은 게르 안에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포즈를 취하거나, 땃돌을 돌려 밀가루를 만드는 시범을 보였다. 불평 한마디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땃돌을 돌리다가 힘이 들었는지 잠시 멈추고 작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아이에게 향했던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어설픈 기 그지없는 발음으로 '바야를라'(고마워)라고 말했다. 테무친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깜짝 놀랄 만큼 환한, 아이다운 미소를 보여줬다. 그 예쁜 얼굴을 카메라에 담지 못한 건 아무래도 괜찮았다. 게르 입구에 서서 형이 사진 찍히는 걸 물끄러미 보고 있던 톱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더니, 톱쇼는 그 작



1 원시 종교 주술사(샤먼)의 캠프
2 서낭나무 앞에서 있는 샤먼
3 게르 안에서 땃돌 돌리는 시범을 보이는 테무친과 톱쇼 형제 4 난로의 연료로 쓰이는 말린 말뚝



은 손으로 검지 손가락을 쥐고 한동안 암전히 곁에 있어 줬다. 불이 빨간 작은 얼굴에 한참을 빠져 있었다. 사진 촬영에 열중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야 게르 밖 난간에 테무친과 잠시 나란히 기대섰다. 그제야 쑥스러워하면서도 낯선 사람이 궁금하다는 듯 조금은 편안하게 다가왔다. 테무친의 부모님은 울란바토르에서 일하고 있고, 테무친도 울란

바토르에서 학교에 다니다 방학 동안 이곳에 와 있다고 했다. 아까 땃돌을 너무 오래 돌려서 힘들지 않았냐고 묻자 '조금 힘들지만 괜찮다'고 한다. '솔롱고스'(한국)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젖는다. 쪼그려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솔롱고스에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작별의 악수를 했다.

칭기즈칸의 고향

초원을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이 걷히고 해가 비치자 무지개가 나타났다.
조각난 무지개를 쫓아 달리다 보니 완벽한 반원의 무지개가 환상적인 터널을
만들어줬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벌어진 마법 같은 일이었다.





1



2



은 '칭기즈칸이 태어난 곳'임을 알리고 있다. 은드르
향은 도시 이름도 '칭기즈 시'로 바꾸고 표지판도 함
께 세워놨다. 실제 칭기즈칸이 태어나 자란 곳은 헨
티주에서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북쪽 끝 다달 숨
(군에 해당)으로 알려져 있다. 초원뿐이지만, 헨티주
는 칭기즈칸의 탄생지이자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1 길 위에 터널을 만든
반원의 무지개 2 헨티주의
주도 은드르향 입구에 세워진
구조물, 칭기즈칸의
고향임을 알리고 있다.
3 환영의 의미로 내는 간식
아를 4 헨티주의
유목민

무지개를 쫓아가는 길

본격적인 장도(長途)가 시작됐다.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서느라 배도 고프고 피곤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
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과 하늘이 맞닿은 곳으로
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날씨는 오락가락했다. 잔뜩 찌
푸렸다가 반짝 햇빛이 비치고, 앞이 안 보이게 비가
쏟아지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파란 하늘이 나타
났다. 마주 오는 차는 드물었고, 출렁이며 달리던 미
니버스가 속도를 늦추고 경적을 울리는 건 느릿느릿
움직이는 소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였다.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있던 일행이 급히 차를 세웠
다. '끝내주는 풍경'이라며 차에서 내렸다. 멀리 축축
하게 젖은 초록 벌판 끝에서 크고 선명한 무지개가
나란히 올라와 있었다. 망원 렌즈가 없었기에 뛰어야
했다. 무지개가 시작되는 곳으로 전력 질주를 했다.
그 와중에도 대접한 한 소똥, 말똥은 용케 피했다. 평
소 달리기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낯선 흥분이 에

너지를 만들어냈다. 무지개 아래서 풀을 뜯던 소들이
고개를 돌려 멀뚱히 쳐다봤다.
다시 차에 탄 뒤에도 이런 행운이 언제 다시 올지 모
르니 더욱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조
각난 무지개가 길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번갈아 나타
났다. 낮게 깔린 거대한 구름 속에서 땅으로 내려온
다리 같았다. 그러다 마침내, 해가 서쪽으로 거의 기
울었을 무렵 완벽한 반원의 무지개를 마주했다. 정확
히 우리가 달리는 길 위로 거대한 터널을 만들고 있
었다. 망원 렌즈는 물론, 광각 렌즈도 없었기에 휴대
전화를 꺼내 들었다. 어설픈 파노라마 촬영 탓에 찌
그러진 모양새로 남았지만, 생애 가장 환상적인 무지
개가 될 것은 틀림없었다.

유목민의 환대

헨티주의 주도 은드르향이 가까워지자 버스가 잠시
멈췄다. 은드르향 입구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구조물



4

처음 일으킨 곳으로, 몽골 사람들에게는 역사적 의미
가 남다른 지역이다.
빛깔 고운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여성이 일행을 맞으
러 나와 있었다. 하늘색 천을 양손에 늘어뜨려 잡고
그릇에 담긴 막대기 모양의 과자를 내밀었다. 하늘색
은 몽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예를 갖추는 의
미라고 한다. 우유를 발효시킨 뒤 건조해 만든 아를
은 몽골 사람들이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환영의 의미
로 내는 간식으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텁텁하면서도
침샘을 자극하는 시큼한 맛에 놀라 얼굴이 살짝 찡그
려졌다. 김치를 맛보고 매운맛에 놀라는 외국인들을 보
고 흐뭇해하는 한국 사람처럼, 처음 먹어보는 아를
맛에 놀라는 한국인을 보고 몽골 사람들이 웃었다.

유목민의 자존심

유목민족인 몽골인들에게 말(馬)은 역사이자 문화이
고 생활이다. 또 자존심이다. 몽골의 아이들은 걸음
마를 할 때부터 말을 탄다고 한다. 헨티주 서쪽 델게
르향에서 만난 말을 키우는 유목민 가족의 막내 볼로
루(4)도 그랬다. 아직은 혼자서 말에 올라타지 못하
는 볼로루는 형들과 어른들이 말을 타는 동안 자신을
태워주지 않는다면 아빠의 옷자락에 매달려 칭얼거
렸다. 어른들이 이리저리 말을 몰고, 우르가(울가미
가 달린 장대)를 이용해 달려가는 말을 붙잡아 쓰러



- 1 유목민의 아이들
- 2, 4 우유를 끓이고 걸러 다양한 간식을 만든다.
- 3 전통 요리 허르헝
- 5 초원의 밤하늘

뜨리거나 말 등에 매달린 채 땅바닥에 놓인 우르가를 잡아 올리는 시범을 다 보여준 뒤에야 볼로루 차례가 왔다. 아빠가 번쩍 들어 올려 말 등에 태워주자 칭얼거리던 볼로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 됐다. 혼자서 그 작은 손으로 고삐를 쥐고 달리는 것은 물론, 어른들과 함께 성난 말들을 몰이하는 데 끼기도 했다.

유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다른 유목민 가족의 남자 아기 역시 이름이 테무친이다. 테무친의 할머니는 아침부터 게르 안의 난로에 우유를 끓이고 있었고, 손님들이 자리에 앉기 무섭게 수테차와 우유로 만든 간식거리들을 내놨다. 할아버지는 자신과 똑 닮은 테무친을 안고 빗속에서 가축들을 돌아보고 와서는 할머니와 함께 천 주머니에 우유를 걸러내 기둥에 매달았다. 천 주머니 안

의 건더기가 아물로 만들어질 것이다. 순한 테무친은 낯선 손님들 틈에서 울지도 않고 이 품에서 저 품으로 옮겨 안겼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부슬비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하면서 그치지 않았다. 오전 내내 그 빗속에서 말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옷과 신발은 축축이 젖고 슬슬 오한이 들기 시작했다. 조금 늦은 점심시간, 유목민의 게르로 자리를 옮기니 마침내 허르헝이 나왔다. 양고기를 토막 내 뜨겁게 달군 돌과 함께 오랜 시간 찌내는 전통 요리다. 양은 유목민에게 귀한 재산이고, 만드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잔치가 열리거나 손님이 왔을 때 내는 귀한 요리다. 다들 손으로 뼈째 들고 고기를 뜯었다. 한기가 든 속을 데우려면 뜨끈한 국물이 간절했지만, 뜨거운 돌이 대신했다. 술에서 꺼

내 어느 정도 식힌 돌을 양손에 번갈아 쥐고 있으면 건강에 좋다고 믿는다. 건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에는 양고기 기름과 냄새가 남았고, 돌에서 손으로, 다시 손으로 전해진 온기는 마음에 남았다.

은하수와 별뚥뚥이 흐르는 밤하늘

여정 내내 흐리고 비가 온 탓에 별이 흩뿌려진 몽골의 밤하늘을 보지 못하다가, 울란바토르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머문 헤티에서 드디어 마주했다. 완벽하게

맑은 날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별과 은하수가 초원의 까만 밤하늘을 채우고 있었다. 조리개를 열어 놓고 잠시 수다를 떠 뒤 확인한 카메라 액정에는 별뚥뚥의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일행들은 윤이 정말 좋라며 함께 기뻐해 줬다. 언제까지라도 고개를 뒤로 꺾고 입을 벌린 채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다. 낮게 깔린 구름 사이에서 타는 듯 붉은 달이 솟아오르더니 어느새 땅을 환하게 비췄고 별은 이내 스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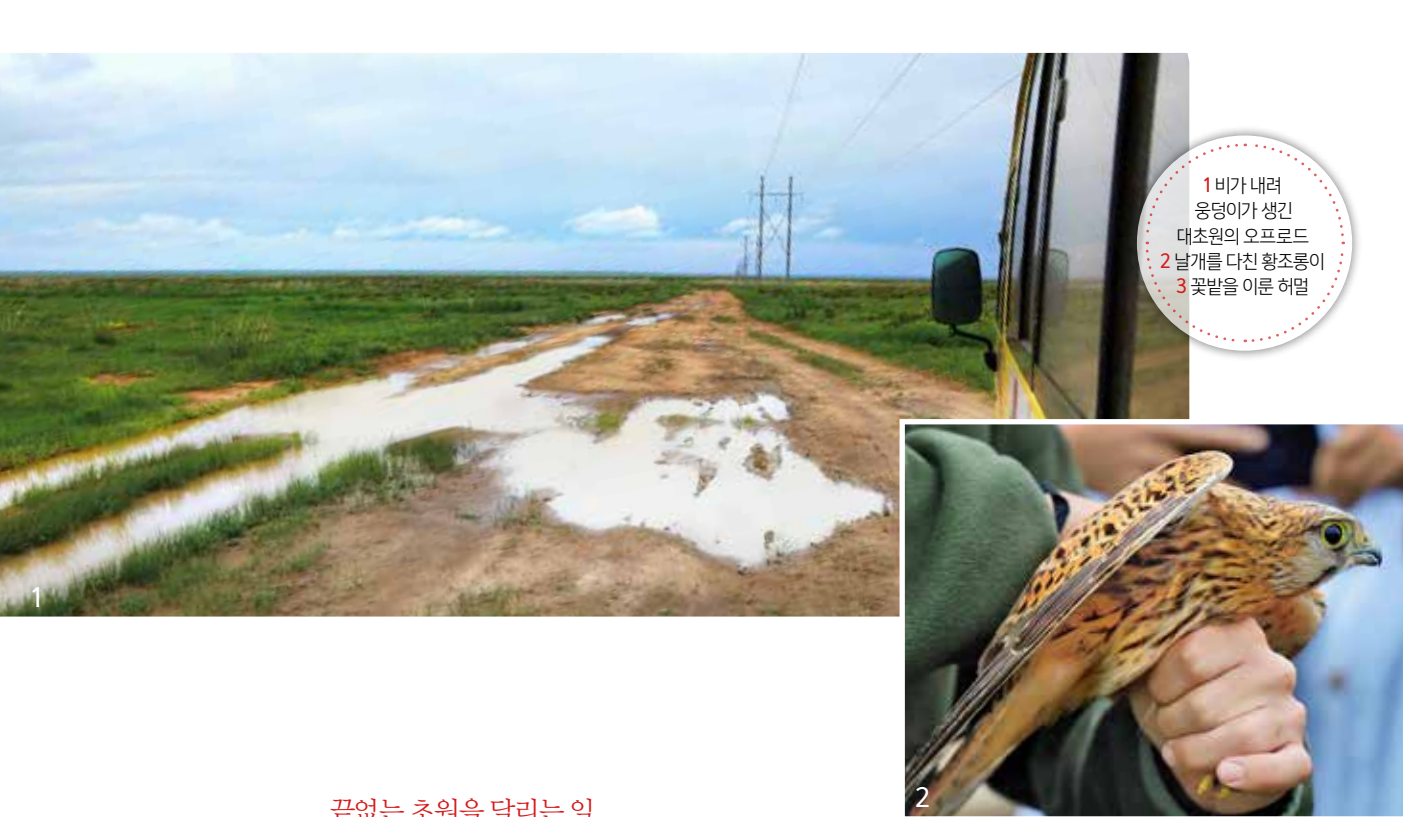


대초원

오프로드

몽골의 최동단 도르노드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대초원(Menen steppe)이 펼쳐져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이곳의 주인은 몽골 영양을 비롯한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다.





끝없는 초원을 달리는 일

구름도 나무도 없는 초원에서는 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다. 호남평야만 봐도 넓다고 감탄하는 서울시민에게는 눈으로 보고도 가늠이 되지 않는 압도적인 풍경이었다. 이 풍경이 카메라에는 어떻게 담길까 궁금해 버스 창밖으로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카메라는 초점을 맞출 피사체를 찾지 못하고 잠시 허공을 헤맸다. 인터넷이 끊겨 구글 지도는 무용지물이고 방향을 알 수 있는 건 오직 태양의 위치뿐인데, 그마저 구름에 가리면 내가 있는 곳도, 향해 가는 곳도 확신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대초원에서는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직선으로만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가던 앞차를 놓친 버스는 잠시 길을 잃었고, 해가 완전히 진 뒤에는 GPS에 의존해 가던 선두 차량마저 목적지를 지나쳐 헤매고 말았다.

시선을 멀리 두고 보는 초원은 그저 평온해 보이지만, 포장된 길이 없는 초원을 달리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

다. 차가 많이 다닌 곳은 구덩이가 패고, 비가 내린 까닭에 온통 진흙 웅덩이가 만들어지면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또 다른 길이 만들어진다. 오래된 중고 미니 버스는 맨땅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요동치고, 버스 안에서는 앓는 소리가 난무한다. 미처 장애물을 피하지 못해 땅콩 보트를 탔을 때처럼 몸이 솟아올랐다가 떨어진다. ‘잘 수 있으면 자보시지’ 미션에 실패한 사람들은 마주 보며 웃는 수밖에 없다. 버스 밖으로 뛰쳐나가 먹은 걸 게워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하루 8시간 이상 오프로드를 달린 중고 버스는 이삼일 만에 종종 불안한 소리를 냈다. 그때마다 버스 기사는 차에서 내려 바닥을 살피고 바퀴를 조여야 했다. 피곤한 일정에 지쳐 짜증이 날 법도 했지만, 몽골의 초원은 버스 안



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면서도 스피커의 볼륨을 높이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만드는 곳이었다.

초원에서 벌어지는 일

길이 90km, 폭 60km에 달하는 메넨 대초원은 몽골 영양(차강제르)의 70%가 서식하고 있고, 온갖 철새를 비롯한 희귀 동식물이 사는 절대보호구역이다. 터키에서 온 새 전문가 에민이 여행에 함께한 덕에 일행들은 하늘을 날고 있거나 수풀 사이에서 쉬고 있는 온갖 새는 물론, 땅속 구멍에 숨어 있는 ‘페레 다비드의 스노 핀치’ 같은 낯선 이름도 하나씩 익혔다. 선두 차량이 갑자기 멈추고 에민을 급히 불러냈다. 날개를 다친 황조롱이 한 마리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구조한 황조롱이를 숙소로 데려와 수의사를 수소문했지만 가까운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와 응급 처치

를 하는 모습을 다 함께 지켜봤다. 멀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날,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사실 시간 약속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기도 했다.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평평한 땅과 하늘뿐인 초원의 풍경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에 따라 농도가 다른 초록빛으로,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다르게 보인다. 그중에서도 연보랏빛 꽃을 피운 ‘허멀’(야생 마늘의 일종)이 군락을 이룬 곳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드넓게 펼쳐진 꽃밭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허멀은 훌륭한 향신료이자 가축에게는 좋은 먹이다. 양과 뱀새와 비슷한 향이 나는데 그대로 호쇼르나 허르헝 등 고기 요리에 넣는다. 허멀을 먹고 자란 소나 양은 고기 맛도 더 좋다고 한다.

달리는 차 안에서 차창을 통해 바라보는 초원과 직접





1



2

1 대초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화장실
2 소련군 전사자의 묘지
3, 4 대형 보살상
'잔라이섹' 앞에서
기도하는 현지인들

그 위에 서서 바람을 맞을 때도 다르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이곳에서 휴게소나 식당은 만무한 일. 짬을 바른 뽕뽕한 빵 한조각과 인스턴트 커피뿐인 점심 식사도 드넓은 초원에서라면, 꼬이는 파리 떼가 반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멋진 피크닉이 된다. 한국산 컵라면이라도 곁들이면 진수성찬이다. 초원에서 맛닥뜨리는 가장 큰 도전은 화장실이다. 대초원을 달리기 시작하면서 가이드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큰소리를 치지만, 화장실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다. 남자들은 버스에서 내려 몇 걸음 걸으면 그곳이 바로 화장실. 아무리 걸어도 은밀한 사생활을 지켜줄 엄폐물은 찾을 수가 없다. 창밖을 바라보다 낮 모르는 이의

물결 삼면과 천장을 판자로 막은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데, 화장실의 뽕 뚫린 입구가 왜 하필 길을 향하고 있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

중국 접경 마을 할호골

대초원에서 버스가 길을 잃고 헤매다 한밤중에야 도착한 곳은 부이르 호수. 몽골에서 다섯번째로, 동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호수다. 호수와 주변 습지는 람사르 습지에 등록돼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숫가로 향했다. 너른 모래사장과 밀려오는 물결 너머 끝이 보이지 않으니, 바다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수평선 너머 보이지 않는 땅은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다. 지난 밤 부이르 호수 인근에 도착했을 때부터 휴대전화는 중국 통신망의

신호를 잡았고, 중국 내 여행 유의·자제 지역을 알리는 외교부의 경고 문자가 들어왔다. 할호골로 가는 길, 할호강 서안 야트막한 언덕에 기대 누운 대형 보살상 '잔라이섹'이 있는 이크 부르크한트에서 각자의 소원을 빌러 온 현지인들을 만났다. 이들은 우유나 곡식을 하늘에, 땅에 뿌리며 비가 더 내려주기를, 도시로 떠난 자식들이 안녕하기를 빌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고흥 유자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며 두 손을 모아 반가워했다. 한반도의 끝에 살던 몽골 사람과 몽골의 끝에 온 한국 사람이 만나는 일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흥조까지 뽀얗게 얼굴로 한국이 정말 좋았다고 말하는데,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 그렇게 다가와 준 그에게 오히려 감사했다. '동쪽'이라는 뜻의 도르노드주에서도 중국과 국경을 접한 할호골은 1939년 소련과 몽골 연합군이 일본-만주군과의 국경 분쟁에서 크게 승리한 곳이다. 전쟁 기념탑과 소련군 전사자들의 묘지는 물론, 포탄이 떨어진 곳까지 그대로 보존돼 있다. 주도인 초이발산에서도 기념탑을 보수하고 별판에는 당시 소련군의 탱크를 전시하는 등 승전 80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할호골 시내 한쪽에서는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개발 공사가 한창이었다.

하루도 같지 않은 초원의 석양

갑자기 몰려온 먹구름이 비를 뿌리고 나자 구름은 하늘을 가린 구름인지 바다에 떠 있는 섬인지 헷갈리는 풍경을 만들어냈다. 석양이 분홍빛에서 붉은빛으로 더욱더 짙어지자 결국 차를 세우고 가장 붉게 타오르는 시간을 보냈다. 초원의 석양은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다. 흥이 넘치던 사람들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가는 길, 흙탕물이 튀어 지저분한 창문 너머로 며칠째 봐 온 똑같은 풍경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좁은 버스 좌석에서 몸을 구기고 뒤척이며 조금이라도 편안한 자세를 찾으려는 몸부림은 여행 내내 계속됐다. 마침내 두 다리와 몸을 버스 좌석과 기둥에 단단히 고정해 어떤 흔들림에도 요동치지 않는 안정적인 자세를 찾았을 때, 길고 긴 여정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⑤



영덩이부터 보게 되는 일도 내 뜻과는 상관없이 벌어진다. 근처에 작은 마을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운까지 좋다면 아주 드



3



4



MORE ABOUT MONGOLIA



헬기를 타고 본 울란바토르의 모습. 고층 빌딩이 들어선 시내 중심부와 게르가 모여있는 외곽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몽골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아리랑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세요”

울란바토르

몽골은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적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울란바토르는 상황이 다르다. 더구나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울란바토르로 모여들어 도시 외곽에 게르를 짓고 살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맹목한 한겨울 추위를 견디기 위해 저질의 석탄은 물론 신발, 폐타이어 등을 가리지 않고 태우기 때문이다. 최근 울란바토르의 한겨울 대기 오염은 베이징의 5배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 울란바토르에서는 현대식 아파트와 주택, 빌딩을 지어 올리는 공사가 곳곳에서 한창이다.

몽골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아리랑

몽골 전통 공연단 ‘투멘 에흐’는 노래와 춤, 악기 연주, 곡예까지 몽골 전통 예술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여 준다. 특히 성대에서 높은음과 낮은음을 동시에 내는 ‘허미’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기예에 가깝다. 본체는 사다리꼴에 악기 끝은 말머리로 장식한 모린 쿠르(마두금)는 2천년 전부터 연주했다는 가장 오래된 전통 악기다. 공연 막바지, 세계 각국의 유명한 음악을 메들리로 들려주는데 ‘아리랑’이 가장 먼저 연주됐다. 이국의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아리랑은 왠지 더 찜했다. 낯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친숙한 것이어서 그랬을까. 처음 악기가 등장했을 때부터 해금처럼 생긴 악기(후치르)가 너무 익숙하다 싶더니, 해금이 몽골계 유목 민족이 사용한 악기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아악도 가야금과 매우 닮았다.



몽골 여행

한국에서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이 있다. 몽골 항공 외에 대한항공이 25년 동안 독점 운항하다가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면서 티켓 가격도 싸졌다. 수도 외 지역을 여행하려면 현지 여행사를 통해야 한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 현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한다.

